

## 라면의 재발견

후루룩 맛보는 라면 연대기

초판 1쇄 발행 | 2021년 1월 15일

기획 | 삼양이건강학재단

지은이 | 김정현·한종수

펴낸곳 | 도서출판 따비

펴낸이 | 박성경

편집 | 신수진

디자인 | 이수정

출판등록 | 2009년 5월 4일 제2010-000256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8길 6(성산동, 3층)

전화 | 02-326-3897

팩스 | 02-6919-1277

메일 | tabibooks@hotmail.com

인쇄 | 제본 영신사

© 삼양원동문화재단·한종수, 2021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ISBN 978-89-98439-86-6 03900

값 15,000원

책을 내며 ... 5

## 11부 | 라면의 탄생



## 1장. 세상의 모든 국수, 라면

- 밀을 먹는 사람들, 빵고 빤다 ... 13
- 카이펑 시민, 국수에 빠지다 ... 16
-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세계로 ... 22
- 국수만큼 다양하고 간편한 음식이 있었던가 ... 23

## 2장. 인스턴트 라면이 등장하다

- 노동자의 국수, 라멘 ... 33
- 인스턴트 라면의 창시자 안도 모모후쿠 ... 36
- 오랜 역사와 현대 기술의 합작품 ... 42
- 스프 별첨 라면이라는 대혁신 ... 44

## 12부 | 대한민국 라면의 시작

## 3장. 라면, 바다를 건너다

- 잘나가던 보험 회사 사장님과 풀풀이죽 ... 51
-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이 나오다 ... 57
- 안 팔리는 라면과 새로운 홍보 전략 ... 61
- 라면, 국민 식품이 되다 ... 65

## 4장. 라면은 어떻게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었나

- 어디에도 없는, 한국 라면만의 맛 ... 73
- 라면 회사 흥망성쇠 ... 78
- 잘나가는 라면 업계의 명과 암 ... 82
- 너희는 라면에 계란 넣어 먹니?
- 우리는 라면에 소면 넣어 먹는다 ... 89
- 라면과 사재기 ... 91





## 5장. 라면 안에 사회를 담다

- 임춘애의 라면, 여의도광장의 라면 ... 101
- 커피 자판기보다 빠른 컵라면 자판기 ... 103
- 분식집에서 편의점으로 ... 107
- 라면, 소비자의 응용과 제품 개발의 변증법 ... 111
- 웰빙과 라면 ... 119

# 13부 | 라면의 새로운 시대

## 6장. 라면으로 놀다

- 라면으로 하나 되리 ... 125
- 쿡방은 라면에서부터 ... 127
- 소비자의 레시피, 라면이 되다 ... 132



## 7장. 라면 시장의 새로운 경향

- 라면, 도전과 응전 ... 141
- 라면은 얼마나 비쌀 수 있을까 ... 145
- 편의점에서 용기면을 ... 150

## 8장. 세계인과 함께 즐기다

- Fire Noodles Challenge ... 163
-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 외국인 ... 166
- 세계 라면 시장의 현황 ... 176

마치며 ... 186

1부록 11 한국 라면의 아버지, 이진 진중윤 ... 191

1부록 21 색다른 라면 레시피로의 초대 ... 225

참고문헌 ... 244



## 마지막 소명, 식량 안보와 풍력 발전

전중윤이 인생의 마지막에 관심을 뒀던 분야는 식량 안보였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가졌던 인터뷰에서 그는 식량 문제에 열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식량이 40퍼센트 모자란다. 우리도 쌀만 자급률이 높지 다른 건 다 모자란다. 전부 수입해 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은 우리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식량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전중윤 명예회장의 장서 중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책들이 적지 않았고, 2010년 4월 27일 출범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우지 사건 이후에는 당시까지 하던 대외 활동을 모두 정리했지만, 이례적으로 90세 나이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고문을 맡기도 했다. 그가 식량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가 말년에 관심을 기울였던 또 다른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였다. 마침 그가 사랑하는 대관령 목장은 풍력 발전의 최적지였다. 2005년부터 풍력 발전기가 하나 둘씩 설치되기 시작해, 지금은

53대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삼양목장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강릉시 전력 수요의 70퍼센트가량을 충당할 양이다.

### 대관령을 굽어보며

이건 전중윤은 2013년 3월, 삼양라면 출시 50주년을 맞아 《중앙 SUNDAY》와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으로 세상과 만났다. 그 인터뷰에서 전중윤은 그가 경영자로서 평생 가져왔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사회 공헌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납부해 국부를 살찌우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자식보다 소중한 존재가 기업이다. 기업인은 기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 성취를 못 이루면 기업은 안 되는 거다. 임직원의 식구까지 책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왕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인류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산다' 이런 건 안 된다. 사회를 위해 무언가 공헌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 중국에서 지인이 《순자》에 나온 내용을 써서